

舊 금오공대캠퍼스 부지 및 시설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활용 건의 안

의 안 번 호	
------------	--

발의년월일 : 2005년3월28일

발 의 자 : 김익수의원 외 5인

1. 주 문

- 불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온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첨단 IT산업을 기반으로 지난해 말 수출 273억불(흑자수출 160억불)을 달성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음.
-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R&D인프라와 산학협력네트워크기능 등이 취약하여 기술·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선 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로 기능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임.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국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구축과 관련하여 금년 2월 이전을 완료한 국립 금오공대 舊 캠퍼스시설과 부지활용이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에서 구미공단을 디지털 전자집적지조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화 시범단지 지정과 함께 혁신 지원중심기능을 담당할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임.

- 지난 2월 정부에서는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면서 "매각"이라는 지역의지와는 상반된 결정으로 이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舊 금오공대시설 및 부지에 대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는 대구경북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항임으로, 舊 금오공대캠퍼스 부지 및 시설을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활용 안을 건의코자 함.

3. 참고사항

- 금오공대부지 활용계획

4. 건 의 처 :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국회의장,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
국회 산자위원, 경상북도지사 등

舊 국립금오공과대학교캠퍼스 부지 및 시설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활용 건의 안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온 740만평의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첨단 IT산업을 기반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생산 48조원, 수출 273억불, 흑자수출 160억불(전국의 54%)을 달성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나, R&D 인프라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기능 등이 취약하여 기술·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선 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로 기능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 35년간 어렵게 조성된 산업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와 경쟁시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구축과 관련한 지원시설기반사업을 금년 2월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한 국립금오공과대학교의 舊 캠퍼스 시설과 부지활용이 한정된 예산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조성기간을 단축하여 연구개발과 35년간의 제조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부에서 구미공단을 디지털 전자 집적지 조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화 시범단지 지정과 함께 혁신지원중심기능을 담당할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을 위한 국비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정부에서는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중앙부처간의 상반된 결정으로 국가 미래의 성장 동력인 IT산업의 장래를 어렵게 하고 있어, 다음사항을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최소의 예산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舊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방법만이 최적임을 감안하시고 부지매각 방침을 철회하여 소중한 국가재산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유용한 공익재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중앙의 관련부처 간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는 대구경북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舊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하여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건의사항들이 적극 반영되어, 내륙최대의 국가공단이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새 활로를 개척하고 R&D인프라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5. 3. 31.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